

대행 스님

인간이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터지면 그대로 도(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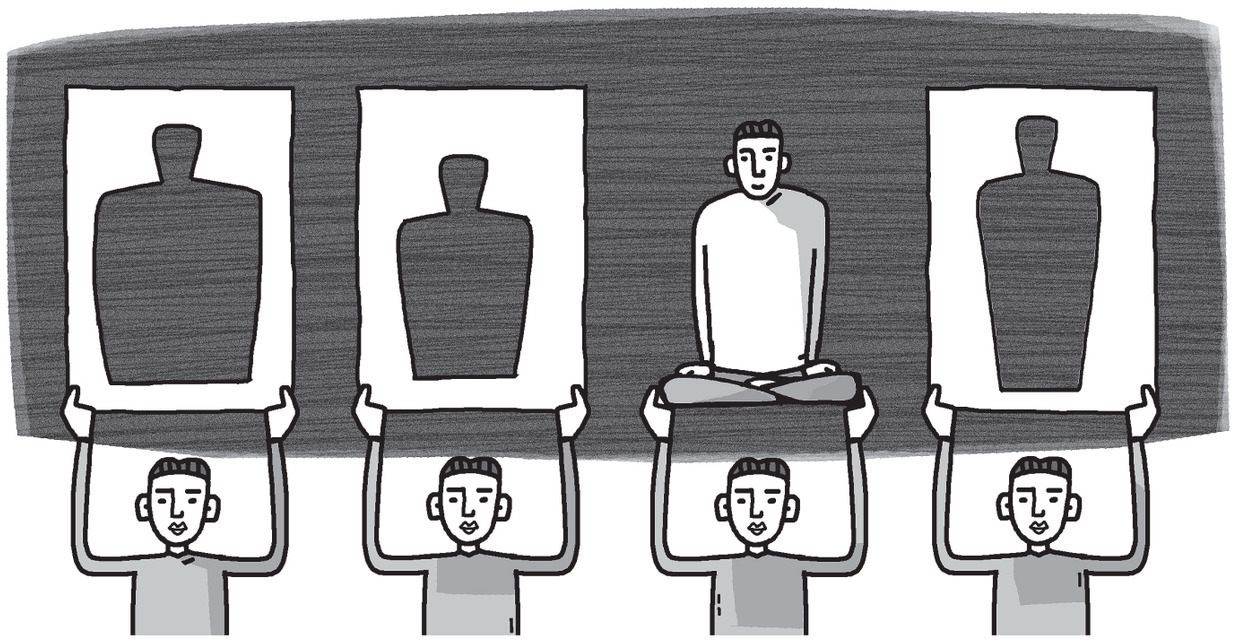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일방적인 설법보다는 우리 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입장으로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질문자1(남)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낚시꾼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낚시를 갔습니다. 향어 낚시인데 좀 큰 거였거든요. 두 마리를 잡았는데 도로 놔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놔준 것이 잘한 것인지, 놔준 게 꼭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큰스님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때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자기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놔주려면 차라리 낚시질을 할 때 곧은 낚시를 넣어요. 왜 꼬부라진 걸 넣어 가지고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자기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야. 사람이 명상을 하려면 곧은 낚시를 넣고 명상을 하지.

또 한 가지는, 그 고기가 만약에 몸을 벗고 갈 때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잡아다가 몸을 죽였을 때, 바로 자기가 몸 벗을 때까지 그 어느 기간이 있다면 그 원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때에 따라서 주어졌을 때, 스스로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랬을 때는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대로 그것은 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별문젠데 자기 심성을 쥐고 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요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된 겁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러 잡아서 일부러 놔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잡은 게 아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보양하기 위해서 잉어를 잡았다거나 고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으로 쓴다거나 이럴 때 죽였다면 이런 때는 그냥 제창 자기로 둘이 아니게끔 요리가 됩니다.

질문자2(남) 지난번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불을 켜게 됩니다. 불을 켜자마자 천장을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걸음도 빠르고 그래서 보는 순간 쫓아가서 안락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 경우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큰스님 살린 겁니다. 그 의문에 꼬리가 없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건 살렸습니다." 할 때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항상 스스로 생각이 나고 스스로 행하거든요. 이것이 그냥 진리이고 그냥 여여함인데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밀접한 사이가 있다는 그 점…. 우리가 지금 윗눈썹에서 밑의 눈썹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격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각본대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고정됨이 없다고 그러죠.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고 각본에서 벗어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쓰고 이 마음도 쓸 수 있는, 체가 없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만 가지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미국에 갔다 왔으면, 미국의 상점에 들렀다면 마음에 지금 미국의 상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지 않은 데는 캄캄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마음이 '해탈이다, 해탈을 못했다' 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온 데는 여기 앉아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도대체 갔다 오지 않은 데는 캄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타심통을 알게 하기 위하고 또 숙명통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체 가고 오는 신족통을 알게 하기 위함이 되는 거죠. 이거 다섯 가지를 바로 내 누진통, 아니 지금 현대 말로 책정기로서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다섯 개가 다섯 개대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가듯 그건 이름이 다섯 개지 다 한꺼번에 동시에 구르고 있어요, 수레바퀴처럼.

그러니 멋진 이 생활을 우리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지 못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저 위에 왔던 OO 아빠라고 있습니다. "내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땅이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삼분의 일 정도는 이렇게 해서 집터로 나가는 터고 공장 지대로 쓰지 못하는 터니까 이쪽으로만 행하고…. 친밀하니까 이걸 일러 준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그런 걸 보는 것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똑바로 그려 주는 것도 이거 도가 아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내가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책정기, 이게 바로 도라는 거다,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갖다 놨을 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게 물로 생기고 뭘로 생기고 다 알아도 이걸 집어 먹고 줄줄 모르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다 알아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도라는 것은 한생각에 의해서,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는 한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있는 거고…. 참, 이거를 얘기를 해도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큰 문젭니다.

어떤 사람은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서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밖엔 될 수 없다' 하는 게 스스로서 주어져요, 자기한테. 이건 색(色)을 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체 없는 그 마음에, 한 찰나에 부동자세한 그 에너지의 뜻은,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큰 그릇을 들이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들이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항상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대면, 용도에 따라서 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담기는 이 자체를 무엇이라고 비유를 할까?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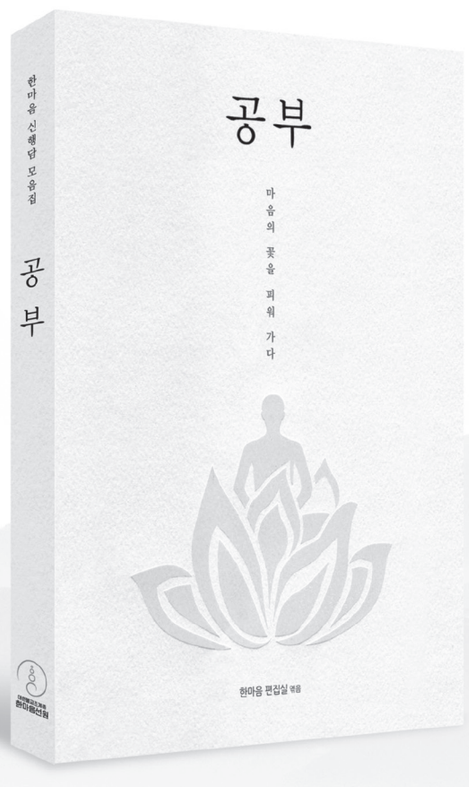
그러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색을 보고 취하고 물질세계로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살면서 이게 습이 됐단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회전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거든.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 지금 우리 법도가 이렇고, 몇 항 몇 조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각본대로 아니면 안 돼.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자 운명 속에서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박은 수박씨가 자기를 자기 안에다 넣어 놓고도 바깥에서 수박씨를 찾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와서요, "내가 길을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야, 이놈아! 병신 같은 놈 같으니. 이놈아, 둘이 아니라는 걸 네가 너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침을 놓는 건데 어떻게 남이 너를 주시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둘이 아닌 법과 시공이 초월됐다는 그 자체를 너한테 튕겨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이놈아, 왜 너는 너한테 맨날 속아!" 이랬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 자체가 너무도 광대하면서도 묘하고, 묘하면서도 신비하고, 신비하면서도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주 가난한 우리 신도가, 소금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주하라니까 소금을 한 공기씩, 그것도 많이도 시주를 못 했습니다, 한 공기씩밖에. 그것도 팔다 남아야 한 공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수질 해서 떠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